

# 8·25 가계부채 대책 ‘청약열풍’ 만

### 가계부채 증가·부동산 거품 확대 우려도... “전매제한·대출액 따른 세금 차등 부과 필요”

부동산 물량을 조절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8·25대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당시 전매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주택시장 위축’을 우려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가계부채는 증가했다. 청약 경쟁률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 확대도 우려된다. 강력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지역별 부동산 맞춤형 규제와 아파트 전매제한 정책의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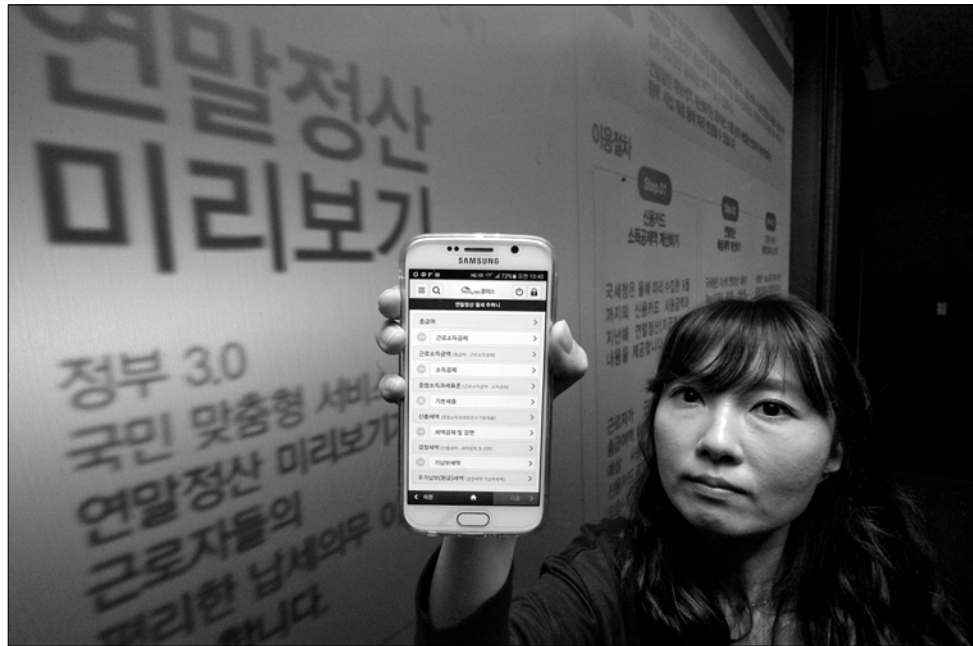
정부는 8월25일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부동산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면서 가계의 빚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다.

전매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이뤄질 경우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급을 제한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전매제한의 경우 여러 시장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고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전매제한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량이 줄면서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어졌다. 자금이 부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전 모바일로 19일 오전 서울 중로구 국세청에서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관계자가 시연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누구나 공인인증 없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으로 풀렸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증 지원이 바닥나면서 대출조건이 강화됐다. 피해는 실수요자 몫이 될 처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은 가계부채만 핑계로 저금리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졌다”며 “기존 투자자들은 저금리에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출을 줄인 뒤 부동산 물량을 조절하는 편이 낫을 것”이라며 “전매제한을

두거나 대출 규모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8·25대책 발표 당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전매제한이) 도입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 “고수익 보장하면 유사수신 가능성 높다”

### 9월까지 신고건수 421건 · 전년비 2.5배 ↑ ... 증권투자, 제조 · 판매 가장 40%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금융사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당국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열네 번째 실용금융정보로 유사수신업체 등 불법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렸다.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이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건수는 421건으로 1년 전(172건)보다 2.5배 가량 늘었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

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한다.

일단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9월말 현재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

보 포탈사이트 ‘핀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상반기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40%에 달했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소풍물 등을 이용한 형태도 많았다.

최근에는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인하고 이중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내는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낸다고 속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하거나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해 농작물의 재배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미심쩍고 꺼림칙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금감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투자위험 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9월 생산자물가지수 두달 연속 올라

### 99.24로 전월비 0.2% ↑ ... 농림수산 5.4% ↑ · 석유 1.4% ↑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폭염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배추, 무 등 농산품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데다, 지난 8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 가격 또한 시차를 두고 소폭 오른 것이 9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6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9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99.24로 전월(99.00)과 비교해 0.2%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자유가로 인해 6년만에 최저 수준인 98.42까지 떨어졌으나 4월 들어 석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7월 유가하락과 정부의 전기요금 감면 조치가 겹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이 종료되면서 한 달만인 8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데 이어 두 달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

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선행한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6.3%)과 축산물(2.5%)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5.4% 올랐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4%), 전자 및 전자기기(0.2%) 등이 올랐으나 제1차 금속제품(-0.4%)이 내려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는 정보, 출판 및 영상서비스(0.6%) 등이 올라 0.3% 상승한 반면 전력·가스·수도는 0.1% 내렸다.

특수분류별 생산자물가를 보면 식료품과 신선식품은 전월 대비 각각 2.8%, 10.5% 상승했다. 에너지는 0.3%, IT도 0.3%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포괄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국내출하 및 수입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한 93.38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4.19로 전달보다 0.4% 상승해 석 달 만에 상승했다. /뉴시스

## 카카오톡 ‘알 수도 있는 사람’ ... 반응 엇갈려

카카오톡이 카카오톡에 ‘알 수도 있는 사람’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데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전화번호를 몰라도 친구 추천을 받으니 편리하다는 의견, 알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불필요하게 추천된다는 불만 등 다양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이 지난 18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휴대 폰 번호나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은 사이라도 친구로 추천해주는 ‘알 수도 있는 사람’ 기능을 도입한데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양쪽이 모두 서로의 번호를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한명만 상대방의 번호를 저장하고 있으면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친구 추가 방식이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개편으로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추천해 지인 관계를 확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자동으로 친구를 추천받아 간편하다는 평가, 친구 추가 기능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업데이트를 벌여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뉴시스

## SK텔레콤, 셋째아이부터 통신요금 5500원 할인

SK텔레콤이 다자녀가구의 미성년 셋째 아이부터 막내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5500원씩 할인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다자녀 가구, 구직자, 장애인, 복지단체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

녀 가구는 만 18세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막내까지 매월 통신요금에서 5500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부모 중 1명과 3명 이상의 자녀들이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가족 고객은 내년 11월까지 이 혜택을 신청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